

韓 작년 근로시간 OECD 3위 장시간 근로 비중 32% '압도'

한국, 2017년 연간 근로시간 2024시간...OECD 평균 1759시간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평균 2024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번째로 일한 시간이 가장 길었다.

15일 한국은행이 펴낸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2024시간으로 조사됐다. OECD에 가입된 37개국 중에서는 멕시코(2257시간)와 코스타리카(2179시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1759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265시간 더 일한 셈이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해마다 줄어

드는 추세이긴 하다. OECD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 2008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209시간에 달했으나, 지난 2016년 평균 2071시간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47시간 더 단축된 것이다. 그러나 OECD 국가별 비교에서는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매년 3위권 머무르는 '오명'을 안았다.

지난해 가장 근로시간이 짧았던 국가는 독일로 연간 1356시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덴마크(1408시간), 노르웨이(1419시간), 네덜란드(1433시간)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일본은 1710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314시간 적게 일했다. 미국도 1780시간으로 일본보다는 길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244시간 짧

았다. 한국은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본의 노동정책연구소·연수기구가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주 49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2015년)이 전체 근로자의 32%를 차지해 주요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 비중이 37.6%로 여성 근로자 비중(24.5%)보다 높았다. 우리나라의 뒤를 이은 일본도 20.1%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16.4%), 영국(12.2%), 프랑스(10.5%) 등이 10%대에 머물렀고, 이탈리아(9.9%), 독일(9.3%) 등은 10% 밑에서 맴돌았다.

“근로시간 단축, 2022년까지 최대 33만6000개 일자리 감소”

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 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9년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가 아닌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할 것

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계약 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2000개 감소하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9만 3천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일차적으로 임금과 가격변화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결정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아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임금체계 ▲강성 노조 등에 따라 임금보전이 불가피하며,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기업이 판매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고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기존보다 약 5% 증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경연은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후폭풍

자영업자 “문 열지만 의미 없다”...여기저기 곡소리

아르바이트 인원·시간 줄었지만 이익 뒷걸음질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의 결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이 여기서 더 오르면 야간영업은 접고 그것도 안되면 문 닫아야죠”(서울 마포구 A 편의점 점주) “최저임금을 떠나, 요즘엔 장가가 잘 안된다. 출퇴근길 음료를 구매하려는 직장인들도 카페나 편의점으로 간다. 문을 열지만 장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서울 종로구 B슈퍼마켓 사장)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이미 인건비 상승의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동네 슈퍼들은 아르바이트 인원·시간을 줄이고 밤늦음이 직접 일해보지만 이익은 뒷걸음질이라고 하소연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동네 슈퍼마켓에 비하면 호황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상봉동에서 보세 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요새는 하루에 옷이 한벌 정도 팔린다. 이제 정말

문을 닫아야 하나 생각한다. 6년 넘게 옷만 팔다가 다른 일을 시작하려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한숨이 늘어난 건 서울 동대문 시장도 마찬가지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동대문 도매·종합시장은 우리나라 의류업의 산실로 불렸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 폐업하는 보세 옷가게가 속출하고 있다. 5년동안 이곳에서 영업을 해 온 D사장은 “매출이 시작할 때(5년 전)보다 3배 이상 줄었다. 인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 매출이 떨어졌다고 들었다. 종업원도 한명만 남기고 내보낸 상태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70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실상 자영업자와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 간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문제는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결과적 자영업자가 분담하게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되는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결과인가”라고 덧붙혔다.

디딤돌대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금리 0.25%p 인하

연소득 2천만~4천만원 이하 가구 0.1%p 인하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가 0.25%p 인하된다. 연소득 2000만 초과 40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0.1%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디딤돌대출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인 경우 2.55~2.85%에서

2.45~2.75%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 연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임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간 임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으나, 육아휴직자들은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임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늘 Lotto 제 815회차 당첨결과 (2018년 7월 14일 추첨)

17 21 25 26 27 36 + 4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2,579,855,358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39	77,175,16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일치
3등	1,703	1,767,37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92,977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596,140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약정연일)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